

전주역 이용객 교통편의 향상

시·철도공사, 4억원 공동 투자 광장 교통혼잡 개선 추진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주역에 배움하거나 하차할 수 있는 정차공간이 설치돼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진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 전주역광장 교통혼잡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주역의 경우, 전주한옥마을이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함으로써 기차 이용객도 크게 증가해 하루 평균 8,392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81년에 지어진 전주역 교통광장은 이용차량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용능력으로 승용차의 하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

정체불편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4억원(시비 2억원, 철도공사 2억원)을 공동투자해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내용은, 전주역에서 백제로로 진행되는 주행차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1차선을 추가하고 전주역사 앞에서 배움하는 차량이 교통정체를 유발하지 않고도 정차할 수 있도록 배움 및 하차공간 5면이 신설된다.

또한, 역광장 동편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광장 내부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동부대로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출구가 추가 설치된다.

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4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여름철 여행 성수기인 오는 7월까지의 모든 공사를 완료해 가치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전주역사 전면개편사업과 오는 2023년까지 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첫마중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지어진지 38년이 경과하면서 낡고 협소해 이용객이 불편했던 전주역사(驛舍)를 오는 2022년까지 정부, 코레일, 전주시와의 총 45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를 통해 선상역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졸업이다” 12일 호남제일고등학교 졸업식이 실시된 가운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복장을 갖춰 입고 학사모를 던지며 서로를 축하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 ‘전주 특례시 지정’ 강력 요청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서... 정부안의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전주시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치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시장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의원, 경기 구리시),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에게 이와 같이 건의했다.

특히, 특례시 지정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단체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광역시 없는 전북을 위해서 혁신성장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특례시로 지정 여건 등의 고려 없이 정부안대로 지정 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외에도, 이날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승수 전주시장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에서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치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등 각 학회에서 참석한 지식인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전주시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20분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 그랜드힐스 호텔 아이리시홀(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

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승수 시장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이번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전국 지식인들에게 홍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전주가 꿈꾸고 전북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 주다움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회계교육

전주시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회계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2일 평화동 전주작은도서관에서 전주시역 25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회계업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주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2019년도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소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기준 사례 △교육 관련 질의응답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보조금 업무의 회계처리 절차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범치신고 112 · 화재신고 119

국가지점번호·기초번호판 추가 설치

전주시, 주소 없는 등산로·도로변 등에

전주시가 주소가 없는 등산로나 도로변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와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 표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산·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토의 통일된 위치 안내 표시 방법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경우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의 도로명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위치 파악이 곤란한 산악이나 주요건물이 없는 도로에서는 재난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

우를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없어 신속한 구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건지산 등 174개소를 설치했으며 기초번호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등부대로 등 35개 도로구간과 버스승강장 등에 1,982개소를 설치했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물이 없는 위치의 위급 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판과 기초번호판을 통해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다 정확하게 현장 위치를 전달 할 수 있다”며, “사고지점 위치를 신속·명확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운전자 혼란 초래 원형교차로 정비

전주시, 삼익수영장·KT팔복지점 앞 회전교차로로 일원화 5억6000만원 투입 실시계획 거쳐 4월부터 공사 착공키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형교차로가 회전교차로로 바뀐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 2억800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삼익수영장 앞 원형교차로와 팔복동 KT팔복지점 앞 원형교차로 2곳을 회전교차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원형교차로에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유형은 통행우선권이 달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로터리는 교차로 내 진입차량이 우선인 것과는 달리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회전차량이 우선이 된다.

이에, 시는 2가지 원형교차로 유형이 혼재돼 교차로 형식이 애매모호하고, 통행우선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운전자 혼란과 교통사고를 유발해온 삼익수영장 앞 원형교차로와 팔복동 KT팔복지점 앞 원형교차로 2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삼익수영장 교차로의 경우, 운전자의 혼란 등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한 총 14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지역에는 통행우선권 정립에 필요한 교통안전지대과 노면표시가 설치되고, 교통섬 축소 및 회전차로수변경 등 기하구조 개선을 통해 교차로 회전차량이 우선인 회전교차로로 전환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4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 사업으로 원형교차로가 회전교차로로 일원화된 경우, 진입차량과 회전차량이 서로 뒤엉켜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차량 운전자에게서는 반드시 교차로 내 회전차량이 완전히 통과한 후에 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의회, 충북 오송

트램시험선 현장방문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장 김원주 의원)는 12일 충북 오송에 있는 한국철도도시철도공사 오송기지를 방문, 트램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무가선 트램은 전기 공급선 없이 배터리를 움직이는 열차로 매연과 소음, 진동이 없고 지면과 수평인 궤도로 달리기 때문에 궤도위 도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원들은 2012년 준공, 시험운행 중인 충북 오송의 1km 길이의 ‘무가선 트램’ 전용시험선을 둘러보고 관계자 들로부터 시설의 장단점 등을 들었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한 무가선 저상트램실증노선 선정공모에 부산, 성남, 수원, 청주 등과 함께 지원했으나 부산시가 최종 공모에 선정됐다.

생태교통연구회 회장 김원주 의원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의 혈액과 같은 교통망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트램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과 교통약자인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도시의 교통망 최적화를 위해 전주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의 혈액과 같은 교통망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트램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과 교통약자인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도시의 교통망 최적화를 위해 전주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지폐 위조 사용 10대 붙잡혀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지폐를 위조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은 3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완산경찰서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A모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전주 시내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 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산하던 중 수상한 지폐를 발견한 편의점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위조지폐가 사용된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사용한 것은 뿐 지폐를 위조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말고도 최소 3명 이상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범을 검거해야 이들이 몇장의 5만원권을 위조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석훈 기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강화 환자의 편의성·접근성 'UP'

기존 894개에서 올해부터 951개로 확대 권역별 거점센터도 신규 지정키로

전북대학교병원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북지역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서비스가 강화되고 기반 시설 확대도 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희귀질환자 가구의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894개에서 △선천성 풍진증후군 △르논이당증 △심실대혈관결찰술 △심내막염 △신경척수염(데빅병) 등을 포함한 951개로 추가됨에 따라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원내용은 △희귀질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9종 질환자의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치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질환자의 간병비(월 30만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91명의 희귀질환자에게 8억3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 전북대학교병원이 희귀질환 거점센터로 지정된 만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81-6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먹을 게 없어서”... 음식점

참고 턴 40대 불구속 입건

새벽을 틈 타 음식점 참고에서 주류와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야간주거침입질도 혐의로 A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2시 5분경 익산 시내 한 음식점 부식창고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소주와 맥주, 계란 등 20만원 상당의 주류와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1일 오전 3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A모씨는 “기숙사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운동화 훔친 30대 검거

음식점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A모씨(3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 15분경 군산 시내 한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발장에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1일 오후 7시경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